

금성강단

발행인 : 이성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

전화 : 2661-1045, 1004, 1009

팩스 : 2662-0206

홈페이지 : www.kumsung.org

교회표어

성령의 충만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된다.

(행1:8)

부제 :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마5:13-14)

목회방향

1.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2.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3. 성도들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4.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

[2020년 7월 5일 금성교회 주일예배설교]

본문 : 출 23:14-17, 34:21-24

제목 : 선민의 신앙 · 늘 푸른 인생(1): 절기를 지키라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말씀 :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출 23:14)

※ 매주 발간되는 금성강단은 주일 낮 예배 설교입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금성교회에 연락해 주
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 뽑혀서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자부심도 느끼게 했던 일 중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이 언제 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가 언제 입니까?

초등학교 시절인지 중학교 시절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아마 중학교 시절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교내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구기 종목은 예선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기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반대표가 시합을 할 때마다 응원단장이 필요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반 응원단장을 누가 했으면 좋을 까? 하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이성오요! 이성오요!”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이름이 불러지지 않자 선생님이 그러면 이성오를 응원단장으로 한다. 이성오의 말을 잘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응원단장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3.7박수가 유행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연습도 여러 번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나와서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가면서 포즈를 취하면 아이들이 와~ 와~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양손을 흔들면 아이들이 와~ 와~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와서 제가 몸을 흔들며 손을 흔들면 그 울동에 맞추어서 아이들이 배꼽을 잡으면서 박수를 “ 짹짹! 짹짹! 짹짹! 짹짹! ” 그렇게 치다가 제가 손을 흔들면 다 함께 와 와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웃음이 나오는 데 당시에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당시에 응원단장으로 뽑혔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뽑아 준다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 담임선생님이 응원단장으로 임명하면서 이성오의 말을 잘 따라야 한다고 말했을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당시엔 담임 선생님의 말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응원을 하면서 최선을 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급우들에게 응원단장으로 뽑히고 담임선생님이 힘을 실어 주니까 어린 중학생인데도 잘 감당했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은총을 생각하면 얼마나 신이 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신이 나는 인생을, 7월의 목회주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늘 푸른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핵심적인 답은 살면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망각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월의 목회 주제는 "선민의 신앙. 늘 푸른 인생"입니다. 주제 말씀은 "숫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사 44:4)입니다. 이 묵상 주제와 말씀에는 신앙인들이 선택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그것이 선민의 신앙입니다.), 삶이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숫아나는 늘 푸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이기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자연의 모습이, 특히 나뭇잎들이 더 푸르러 가는 이 계절에 자연의 나무 못지않게 여러분들의 삶도 늘 푸르러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된 진리가 주는 은총을 받아 누리려면 "숫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유대 민족들에게 버드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구약성경에는 버드나무가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특히 주목할 내용은 초막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레23:33절 이하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9-40입니다. "39.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 다섯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와 절기를 지키되 첫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40. 첫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 초막절 행사의 핵심적인 장면은 성전의 제사장 뜰에 있는 제단 남서쪽에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놓고 매일 제단 주위를 한 바퀴씩 도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모짜>라는 마을의 시냇가에서 새로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왔습니다. 버드나무 가지는 꺾이는 순간 하루만 지나도 말라비틀어집니다.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제단 주위를 일곱 바퀴를 돕니다.

순례 객들은 제사장의 뒤를 따라 제단 주위를 돌면서 물이 없어 말라비틀어져 가는 버드나무 가지를 옆에 두고 그 잎을 땅에 떨어뜨리며 시편 118:25에 나오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곳에서 <이제 구원하소서> 는 히브리어로 <호쉬아나>입니다. 우리말 발음으로는 <호산나>입니다. 이 말에서 명절이 끝나는 날 즉 초막절 마지막 날을 유대인들은 <호산나 라바(큰 구원의 날)>라고 불렀습니다.

이 초막절 행사에 쓰이는 버드나무의 별칭은 호산나입니다. 왜 버드나무 가지를 옆에 두고 기도합니까? 왜 그 잎을 땅에 떨어뜨리며 기도합니까? 물이 없으면 말라비틀어지는 버드나무이지만 물만 있으면 쑥쑥 소생하는 버드나무를 생각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이 시작되는 10월 무렵에는 건기가 끝나고 이른 비가 내릴 때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라바(큰 구원의 날)>는 비가 제 때 내릴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은 생명 그 자체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어가는 버드나무이지만 물가에만 있으면 강하게 소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번영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물가에 있는 버드나무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번성하는 삶을 말합니다. 한번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버드나무 사진)

이처럼 버드나무는 물가에만 있으면 숫아납니다. 버드나무로 비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이란 바로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선민의 신앙을 말합니다. 그 선민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는 믿음만 있으면 소생한다는 말입니다. 선민의 신앙만 분명히 갖고 있으면 버드나무처럼 숫아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늘 푸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제가 선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지 안 갖고 있는 지 무엇을 보고 아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은 7월 내내 듣게 될 것입니다.

다. 매주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민의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째로 절기를 지키는 일입니다. 왜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 선택받은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본문 출23:14-17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4.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빔월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6.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 함이니라. 17. 네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무교병의 절기는 유월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노예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개인의 삶에 적용하면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날보다 더 귀한 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이 선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7월의 마지막 찬양은 이 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또한 초막절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각자가 초막을 (텐트) 만 들고 그 안에서 일주일의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유월절이 끝난 후 7주가 지난 다음 날 즉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에 곡식을 처음 거두어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절기입니다. 태양력으로 5월 또는 6월경에 맥추절을 지키게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7월 첫 주에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는 데 그 이유는 아마 기독교 초기에 보리농사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7월 첫 주에 드리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리보다는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맥추절은 사실 지난 시간에

감사하여 드리는 초막절의 의미가 더 많습니다. 즉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남은 6개월을 감사로 시작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맥추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지난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은혜를 제가 어제 성도님들에게 보낸 목회 서신에 잠시 언급했습니다. 그대로 인용합니다.

하반기의 첫 주일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전혀 예상치도 못한 코로나 19가 발생하여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동안 현장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가슴을 옥죄어 오던 고통의 시간들, 지금도 여러 이유로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는 성도님들과 어르신들의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 또한 어린 자녀들과 그들의 젊은 부모들의 안타가운 모습들, 예배 후 교제를 나누었던 시간들의 사라짐, 그리고 코로나 19와는 상관없이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한 아픔들, 사랑하는 가족과의 헤어짐 등은 힘든 시간이었음을 생각합니다. (질병이 갑작스레 찾아와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성도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암 병, 모친, 장모, 장인과의 이별의 아픔 등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되돌아보니 감사함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은 아니지만 매주 예배가 은혜가운데 진행이 되었고, 교회학교 예배도 전 부서가 드리면서 회복의 모습이 점점 나타나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 각 개인이 삶의 큰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기면서 은혜 안에 지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코로나19가 활동하는 위험 가운데에서도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매 순간 순간 마다 지켜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 때까지 늘 곁에 계시며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감사할 것뿐입니다. "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을 까요?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가장 큰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고(유월절)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과거의 은총을 잊지 말고 (초막절)그리고 삶에 필요한 열매를 이렇게 반드시 주시는 그 은총을 잊지 말고(수장절) 감사하면서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앞으로도 구원받은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에서 앞으로도 계속 보호해주시고, 삶에 필요한 열매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추호도 불안 해 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들은 12살 이상 되면 1년에 3번씩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성전에 와서 절기 예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적어도 12살 이상은 스스로 생각할 있는 나이입니다. 생각이 있는 신앙이라면 개념이 있는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 바로 선민의 신앙으로 사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인정해주십니다. 그것도 신앙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주님이 임하실 때 모든 신앙인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모습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절기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50:23에서 말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삶속에서 꼭 필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런데 하나를 덧붙인다면 그것은 감사다."

그렇다면 절기예배를 드리는 자들에 하나님은 어떻게 버드나무처럼 솟아나게 하실 까요? 절기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인 출34:23-24을 보시기 바랍니다. "23.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24.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첫 번째 약속한 복은 이방나라들을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넓혀주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고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삶의 지경도 버드나무처럼

솟아나게 한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12살 이상의 남자들이 성전에 갈 때 적군들이 야 저들이 땅을 비우고 갔다 집을 비우고 갔다 여자와 어린 것들만 남아 있다 쳐들어가자고 하면서 적들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절기예배를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삶의 터전을 약탈하려는 모든 악한 것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변에 악한 사탄이 우리들을 얼마나 호심 탐탐 노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오늘도 절기예배를 드렸으니 원수들의 공격을 다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맥추절은 처음 수확한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신16:10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에 대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잠3:9-10입니다. "9.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물질에 풍요로움을 약속하셨습니다. 새 포도즙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물질의 새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절기예배를 잘 드림으로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물질이 들어오는 은혜가 버드나무처럼 솟아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선택받은 선민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지난 시간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삶에 필요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절기예배를 모릅니다. 오직 선택받은 신앙인들만이 지키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지키는 예배입니다. 절기예배를 잘 드리셔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선민의 신앙으로 살고 있구나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에 버드나무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